

#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

## Characteristics of the Marriage and Marital Stability among Elderly Couple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김태현\*\*

강사 전길양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im, Tae-Hyun

Lecturer: Jun, Gil-Ya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arital characteristics on the marital stability among the elderly couples. Each participant was measured using a scale for the concept of marriage, a scale for marital coherence, a marital stress scale, a coping behavior scale and a marital stability scale. Elderly people who have a living spouse and who are living in Seoul were recruited. The data from two hundred and forty participants over 60-years-old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demographic factors such as educational level, health, economic status, the main source of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appeared to significantly predict the elderly folks' marital stability. Second, gender seems to be a factor in elderly couples' experience of marital stability. Husbands perceived marital stability to be higher than wives did. Third, the perception of marital stress, positive coping behavior and marital coherence influence the marital stability of the elderly couples.

That is, the less elderly couples perceived marital stress and the less they relied on negative coping behaviors, the higher they perceived marital stabi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a healthful coping behavior to marital stress is important in enhancing marital stability for elderly couples.

---

▲ 주요어(key words): 결혼특성요인(characteristics of the marriage),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대처방식(coping behavior)

### 1. 서론

우리사회는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출산율과 사망률의 급속한 변화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망률의 감소는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2000년 평균수명은 현재 전체 75.9세로, 남자가 72.1세, 여자

가 79.5세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1). 이는 지난 1960년에 남자가 51.1세이고 여자가 53.7세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0여년 이상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는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 부부관계의 연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더불어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중년기 이후 부인은 적극적인 부모역할에서 벗어나고, 남편은 은퇴로 인해 직업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부인과 남편 모두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부관계 질이 더욱 중요해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00년도 이세용박사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주저자: 김태현(E-mail: thkim@cc.sungshin.ac.kr)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노년기 부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년기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부부의 결혼특성, 결혼만족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장기결혼을 유지하거나 충족하게 하는 요인들의 탐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들 연구들(Lee, 1978; Anderson, et.al, 1993; Tower et.al, 1996)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노부부가 다른 연령층보다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부부의 심리적 적응은 결혼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년기 연장으로 인한 노부부의 확대 경향, 노인부부만이 거주하는 1세대 가구의 증가,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희망을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의 재혼에 대한 관심도 증가(손승영, 1994) 및 노년부부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탐색의 증가(이가옥, 2000) 등으로 노부부관계에 대해 현실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해체의 경향과 더불어 나타나는 황혼이혼의 증가나 노년기를 자식 없이 두 노부부만 살고자 하는 부부들의 출현 등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질환,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집중되어 왔으며(신화용, 1995), 비교적 최근에 들어 노년기 부부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부부가 지각한 결혼만족이나 적응을 본 연구(김태현·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김수현, 1999),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나 은퇴 후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신화용·조병은, 1997; 이신숙, 1997), 그리고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등을 살펴 본 연구(전길양 외, 1998; 홍계영, 1999; 송영미, 2000; 김선우, 2002)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노년기 연장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노인세대의 경우, 결혼의 의미를 두 남자가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기보다는 친족집단을 재생산하고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보는 경향이 강했던 계층이므로,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현대의 결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동원, 1988). 또한 결혼관련 선행연구들(Booth, Johnson & Edwards, 1983; Lewis & Spanier, 1979; 전춘애, 1996)은 결혼만족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은 아니며, 결혼안정성은 다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부부관계의 질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결혼만족도 이외에 결혼안정성과 같은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결혼의 연장은 결혼해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Riley, 1999). 우리사회에서도 연장된 결혼관계만큼 결혼의

불안정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관계의 해체경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의 이혼의 증가폭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01)자료에 따르면, 평균 2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이혼율은 1991년에는 전체 4.4%이었지만, 해마다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10.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의 영속성에 보다 중요한 가치를 두는 노년기 결혼에서 결혼관계를 저해하는 요소가 증가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혼안정성은 장기결혼생활을 충분히 예측하고 노년기 결혼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 하나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안정성은 그 영향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족이나 적응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편이며(전춘애 외, 1993; 임선영 2001), 특히 노년기 부부대상의 결혼안정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노년기의 연장으로 장기적인 결혼관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년기 결혼의 특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탐색은 노년기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부부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부부의 결혼 태도(Skolnick, 1983; 김수현, 1999; 김영나, 2000), 의사소통의 정도(Atchley, 1992; 김선우, 2002), 가족스트레스나 대처행동(Ducharme, 1995; 임선영, 2001), 배우자 지지나 역할평가(Lee, 1989; Anderson, 1993; 김태현·전길양, 1998)와 같은 부부간의 가치관이나 상호작용의 긍정적 교류가 노년기 결혼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년기 부부가 갖는 결혼개념, 결혼관계스트레스 정도 및 이에 대한 대처행동, 결혼생활의 위기상황이나 배우자 역할의 재평가를 통한 결혼응집성 등은 노년기 결혼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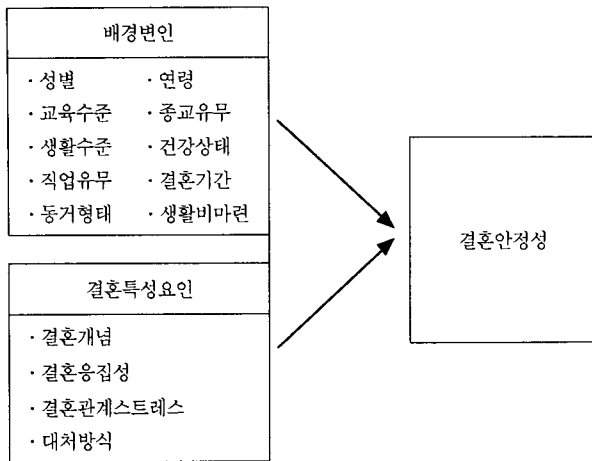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부관계 및 결혼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노년기 성공적 결혼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상호간의 결혼특성요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노년기 결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및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노년기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셋째, 배경변인과 노부부의 결혼특성요인이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결혼관계는 배우자간에 도구적 및 정서적 지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생활범위가 축소되는 노인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기의 긍정적인 결혼관계는 부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Tower & Kasl, 1996) 보인다.

부부의 결혼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갖는 태도나 인식, 행동들이 결혼생활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권희완(1994)은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연구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떠한 결혼개념을 갖고 결혼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짐을 밝히면서, 남편의 제도적 결혼개념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부의 성역할태도나 부부간의 상호존중 및 응집성에 대한 연구들(김명자, 1992; 박민자, 1994)은 이들 변인들이 부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성역할 개념이 낮고, 부부간의 유대와 응집성 정도가 클수록 부부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내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정도와 그에 대한 대처행동도 부부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최규련, 1995; 조유리·김경신, 2000). 이들은 결혼관련스트레스가 낮고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부부의 결혼개념이나 인식, 결혼응집성, 결혼관련스트레스정도와 대처방식 등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평가, 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긴장의 정도, 결혼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등이 성공적 결혼에 관련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많은 연구들(김수현, 1999; 이신숙, 1997; 이동원, 1988; Miller, 1976)은 배우자 선택관이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고, 부부의 애정과 사랑, 동반자적인 가치가

높은 결혼태도를 지닌 부부들이 결혼의 질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 부부중심의 우애적 결혼개념이나 성역할 태도는 결혼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년기는 은퇴나 사회관계의 축소 등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에 긴장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Anderson, Russel & Schumm, 1983; Atchley, 1992; 유영주, 1990),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성공적으로 위기상황을 재정의 하여 부부간의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결혼응집성이 높을 때, 노부부는 그 상황에 대한 수용감과 이해를 증진시켜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obson, 1983; Antonovsky, et.al. 1986; 최연실, 1996). 즉 노년기 부부에 있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결혼응집성의 의미는 결혼안정성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는 노화에 따른 사회적·심리적·신체적 변화에서 오는 생활사건들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서로에게 관심과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게 되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성격문제, 의사소통문제, 애정문제 및 성문제, 가치관 및 생활습관과 같은 결혼관계 측면에서의 불일치는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양옥남, 1995, 전길영·임선영, 1998), 노부부의 결혼관계스트레스는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년기 결혼생활은 계속해서 긴장과 위기적 경험이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부부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처방식의 형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인성특성이나 사회적 지원의 요소들보다 대처반응이 더 강력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Pearlin & Schooler, 1978), 노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결혼의 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들은 긍정적 대처방안의 사용이 스트레스에 따른 결혼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정적인 대처방식이나 소극적 대처방식 보다 부부관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된다(김명자, 1991; 노치영, 1996; 임선영, 2001). 즉 건설적 대화나 노력을 통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긍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노부부들이 결혼관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Canary & Cody, 1988)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부부가 체념이나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거나 비난이나 부정적 감정노출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결혼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노년기 부부가 경험하는 결혼관계의 여러 특성요인들은 노년기 결혼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노부부가 결혼개념과 같이 결혼생활에서 갖는 태도나 인식 등이 결혼생활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부부간의 유대나 응집성, 결혼생활에서 갖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들은 결혼의 질과 관련된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결혼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혼개념, 결혼응집성, 결혼관계스트레스 그리고 대처방식 등을 결혼특성의 요인으로 분류해 보고, 이러한 노년기 결혼특성요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노년기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은 부부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결혼을 유지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결혼관계에 대한 연구들(Lewis & Spanier, 1978)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결혼관계의 규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Booth, Johnson 및 Edwards(1983)는 결혼안정성을 결혼불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결혼불안정성이 결혼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부부사이에서 결혼관계의 질이 높고 결혼이외의 대안적 매력이 적을 때, 그리고 결혼으로의 외부적 압력이 높을 때, 결혼안정성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결혼안정성은 결혼지속에 대한 가치관이나 결혼지속에 대한 부모형제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높고, 재혼에 대한 전망과 같은 대안적 매력이 적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득성, 1992).

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젊은 시절의 결혼관계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년기는 생활범위의 축소나 노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감퇴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노부부가 젊은 때보다 결혼 외부적 대안의 선택이 넓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의 경향은 노부부의 개인적 특성 및 결혼관계의 여러 특성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노년기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의 관련 변인들

노년기 결혼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들을 보면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특성 중 결혼개념은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애적 결혼개념 보다는 전통적 결혼개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이 높은 남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또한 전통적 결혼개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권희완, 1994).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결혼응집력은 결혼초기에 높고 자녀출산과 양육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년기에 와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현, 1999).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는 잠재적 긴장의 근원으로 나타나며(Lee & Shehan, 1989), 소득감소에 대한 확실한 노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노부부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년기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 낮은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등 노부부의 자원 부족은 노부부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전길양 외, 1998, 임선영, 2001). 또한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공격적 대처방안을 활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더 적극적 대처방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양옥남, 1995), 노부부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대처방식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결혼에 더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윤영, 1990; 김혜경, 1996; 김수현, 1999),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들보다 결혼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이처럼 결혼 인식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생활에서의 인내와 헌신을 더 많이 요구받는 반면, 결혼생활에서 오는 보상과 만족도는 낮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건강, 교육수준, 경제수준의 정도는 결혼관계의 질 향상에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Johnson, 1985; Atchley & Millers, 1983; 윤영, 1990), 대체로 노부부가 개인적 자원이 많을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기 결혼관계 연구에서 이러한 노부부의 개인적 변수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노부부들의 결혼특성과 결혼안정성에 대한 개인적 변수들의 결과는 노부부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 1)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을 노부부의 결혼개념, 결혼응집성, 결혼관련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등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결혼개념척도는 권희완(1992)의 결혼인식척도와 서병숙·김수현(2001)의 결혼태도척도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제도적 결혼과 우애적 결혼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결혼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에 있어서 결혼 당사자들보다는 두 가족 간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중심적인 결혼개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61$ 로 나타났다.

결혼응집성 척도는 총 6문항으로 Antonovsky와 Sourani (1988)의 FSOC(Family Sense of Coherence)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연실(1996)의 척도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부가 협동해서 하는 일은 항상 잘되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직면하는 전체 상황에 대해 부부의 수용감과 이해가 높아 결혼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lpha=.66$ 로 나타났다.

결혼관계스트레스 척도는 McCubbin, Wilson 및 Patterson (1981)의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척도와 이영자(1999)의 노인스트레스척도, 김영자(1992)의 부부갈등척도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결혼관계스트레스척도에는 부부의 의사소통문제, 가치관 및 생활습관 문제, 애정 및 성문제를 포함한다. 그 내용에는 “배우자와 관심 있는 공통적인 화제가 없어 대화가 잘 안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배우자와 애정이 없으며 서로 관심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배우자와 가치관 및 인생관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관계스트레스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8$ 로 나타났다.

대처방식 척도는 가족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요인분석한 연구들(김윤희, 1994; 최연실, 1996; 노치영, 1996)과 노인의 대처방식을 유형화한 양옥남(1994), 김계경(1997)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부부간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노부부들이 대처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는 긍정적 대처, 소극적 대처, 부정적 대처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긍정적 대처방식에는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실천에 옮긴다”,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려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에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다”, “체념하거나 참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부정적 대처방식에는 “배우자에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짜증을 부린다”,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 욕을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대처방식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각각의 신뢰도는 긍정적 대처가  $\alpha=.87$ , 소극적 대처는  $\alpha=.80$ , 부정적 대처는  $\alpha=.81$ 로 나타났다.

## 2)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 척도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를 묻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부터 실제 이혼 제안이나 별거 경험 등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Booth 등(1983)의 척도를 국내에 적용시킨, 김선영(1989), 김득성(1992)의 척도에서 문항을 선별하여 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에서 “항상 그렇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5$ 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있는 60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우자가 있는 남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을 꺼리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을 포함해 관련 전공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전반적으로 문항을 재조정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는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해 표집되었으며, 자료수집은 본 조사의 취지와 조사 방법을 충분히 교육받은 조사요원과 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요원들은 아파트나 노인정, 교회, 성당 등을 방문해 노부부를 소개받아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260부가 배부되어, 부실 기재되거나 미 회수된 것을 제외하고 총 24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각각 120명이며, 60대가 61%, 70대 이상은 35.3%로 평균연령은 64.5세이다. 대체로 노부부가 함께 생존하는 경우는 노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60대의 비율이 높게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4.1%로 가장 적으며, 그 외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71.4%로 조사대상자의 2/3를 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59.3%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44.8%로 나타나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11.2%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을 하거나 저금이나 재산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반정도(51%)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약 6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형태는 95%정도가 초혼이며, 결혼기간은 30-39년 정도가 58%로 가장 많았고, 40년 이상된 부부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거형태는 노부부만 사는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장남 외기혼자녀, 미혼자녀, 장남부부 등과 사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초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많은 관계로, 아직 출가하지 않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0)

변인	분류	N(%)	변인	분류	N(%)	
성별	남자	120(50)	건강	나쁘다	76(17.0)	
	여자	120(50)		좋다	123(51.0)	
연령	60대	148(61)	직업	유	96(39.8)	
	70대 이상	85(35.3)		무	144(59.8)	
	평균	64.5세				
교육 수준	초등졸	71(29.6)	결혼 형태	초혼	228(94.6)	
	중졸	67(27.8)		재혼	12(5.0)	
	고졸	68(28.2)				
	대졸이상	34(14.1)				
종교	유	172(71.4)	결혼 기간	30년 이하	27(11.2)	
	무	68(28.2)		30-39년	140(58.1)	
생활 수준	못사는 편	50(20.7)		40-49년	57(23.7)	
	보통	143(59.3)		50년 이상	16(6.6)	
	잘사는 편	47(19.5)		평균	36.6년	
생활비 마련방법	일을 한다	108(44.8)	동거 형태	노부부	80(33.3)	
	연금·퇴직금	35(14.5)		장남부부	43(17.9)	
	저금·재산소득	43(17.8)		장남외기혼자녀	57(23.9)	
	자녀	27(11.2)		미혼자녀	53(22.1)	
	기타	27(11.2)		기타	7(2.1)	

주: 빈도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측값 때문임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중다범위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및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1>인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및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 노인들의 결혼개념은 5점 만점에 평균 3.62로, 제도적 결혼개념보다는 비교적 부부중심의 우애적 결혼개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결혼응집성은 평균 3.21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대상 노부부들의 결혼응집성은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관계스트레스는 평균 1.91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대상 노부부들의 결혼관계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결혼안정성은 4.11로 지각하고 있어, 높은 결혼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결혼의 경

우,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가 서로에게 적응하게 되거나 지속되어온 결혼생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Atchley, 1992; Anderson, et.al, 1993; 김태현 외, 1997)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기간이 평균 37년 정도인 본 조사대상 부부들은 결혼관계의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며, 상대적으로 결혼안정성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대상 노부부의 대처 방식을 살펴보면, 긍정적 대처방식은 3.09점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은 2.47, 부정적 대처방식은 1.79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노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직면하는 긴장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조사대상 노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보다 부부중심적 결혼개념을 갖고 있으며, 결혼상황에서 결혼응집성은 5점 만점에서 3.21로 중간이상의 수준이고, 결혼관계 스트레스는 낮으며, 상대적으로 결혼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2&gt; 노년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

변수		평균(SD)
결혼개념		3.62(.88)
결혼응집		3.21(.67)
결혼관계스트레스		1.91(.83)
대처방식	긍정적대처	3.09(.82)
	소극적대처	2.47(.78)
	부정적대처	1.79(.60)
결혼안정성		4.11(.85)

주) 각 척도는 5점 만점임.

### 2.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

노년기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은 성별(p<.01), 연령(p<.01), 교육수준(p<.05), 생활수준(p<.05), 생활비마련방법(p<.01), 직업(p<.05), 결혼기간(p<.05), 동거형태(p<.05)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60대가,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 생활비를 일을 해서 마련하거나 연금·퇴직금 등 고정적 소득원이 있는 경우, 직업이 있을

때, 결혼기간이 39년 이하이거나 50년 이상일 때, 기혼자녀와 동거할 때가 결혼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소득원이 있는 등 노년기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활용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노화가 덜한 것으로 생각되는 노부부들에서 결혼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노부부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결혼안정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의 차이 (N=240)

변인(N)		결혼 안정성	
		M	Duncan
성별	남자(120)	4.29	
	여자(120)	3.93	
	t값		3.33**
연령	60대(148)	4.24	
	70대이상(85)	3.91	
	t값		2.87**
교육 수준	초등졸(71)	3.95	A
	중졸(67)	4.14	A
	고졸(68)	4.09	AB
	대졸이상(34)	4.45	B
	F값		2.69*
종교	유(172)	4.17	
	무(68)	3.96	
	t값		-1.71
생활 수준	못사는 편(50)	3.84	A
	보통(143)	4.18	B
	잘사는 편(47)	4.20	B
	F값		3.38*
생활비 마련 방법	일을 한다(108)	4.27	A
	연금·퇴직금(35)	4.19	A
	저금·재산소득(43)	4.06	B
	자녀(27)	3.99	B
	F값		3.64**
건강	나쁘다(76)	4.04	
	좋다(123)	4.15	
	t값		.837
직업	유(96)	4.26	
	무(144)	4.01	
	t값		2.20*
결혼 기간	30년이하(27)	4.47	B
	30-39년(140)	4.07	B
	40-49년(57)	3.96	A
	50년이상(16)	4.44	B
	F값		3.16*
동거 형태	노부부/ 미혼자녀(133)	4.05	
	기혼자녀(100)	4.27	
	t값		-2.07*

\* p<.05 \*\* p<.01 \*\*\* P<.001

### 3.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연구문제 3>인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결혼특성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해서 설명력의 증가를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혼특성 요인 중 결혼개념, 결혼응집성, 결혼관계스트레스는 노부부의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며, 대처방식은 노부부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양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여 단계별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I단계에서는 성별, 종교 등 개인적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모델 I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개인적 변인만을 제시하였음). 모델 II에서는 노부부들의 결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인을 추가하여 살펴보았으며, 모델 III은 결혼생활에서의 행동양식인 노부부의 대처방식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 4>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회귀식 모델이 나타나 있다.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I단계에서는 노부부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생활수준, 생활비마련방법, 직업유무, 결혼기간, 동거형태 등 10개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이들 독립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은 성별과 종교, 생활비마련방법 등 3개의 변수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이들 개인적 변인들이 설명하는 R<sup>2</sup> 값은 7% 이었으며, 성별( $\beta = -.297, p < .05$ ), 종교( $\beta = .133, p < .05$ ), 생활비마련방법( $\beta = .271, p < .05$ )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그리고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부들은 결혼안정성이 더 높다고 지각하고 있다. II단계에서 노부부의 결혼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40%가 증가하였으며, 이 때 성별( $\beta = -.192, p < .05$ ), 결혼응집성( $\beta = .143, p < .01$ ), 결혼관계스트레스( $\beta = -.619, p < .001$ )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들 2단계에서 유의한 변수들은 노부부의 결혼안정성 총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즉 노부부가 결혼응집성이 높고 결혼관계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할수록 결혼안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부부의 결혼생활 대처방식을 추가한 모델 III의 경우, 전체 설명력은 57%이었다. 즉 성별( $\beta = -.214, p < .05$ ), 결혼응집성( $\beta = .106, p < .05$ ), 결혼관계스트레스( $\beta = -.488, p < .01$ ), 부정적 대처방식( $\beta = -.370, p < .001$ )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며 이들은 설명력을 10% 증가시켰다. 노부부가 결혼생활의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정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결혼안정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beta$	B	$\beta$	B	$\beta$
성별	-.494	-.297*	-.306	-.192*	-.356	-.214*
종교	.246	.133*	.162	1.73	.113	.061
생활비 마련방법	.361	.217*	.002	.190	.145	.087
결혼개념			.002	.012	.003	.005
결혼응집			.177	.143**	.131	.106*
결혼관계스트레스			-.638	-.619***	-.503	-.488**
긍정적 대처방식					.002	.032
소극적 대처방식					-.002	-.046
부정적 대처방식					-.517	-.370***
Constant	3.62		4.93		5.98	
Adjusted R <sup>2</sup>	.07		.47		.57	
Adjusted R <sup>2</sup> 증가량			.40		.10	
F	2.83**		15.60***		19.35***	

\* p<.05 \*\* p<.01 \*\*\* p<.001

주) 성별은 남(1), 여(0)  
 종교는 유(1), 무(0)  
 생활비마련방법은 일을 한다(1) 나머지(0)로 가변수 처리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결혼응집성, 결혼관계스트레스, 부정적 대처방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노부부의 개인적 변인들보다는 결혼관계를 나타내는 노부부의 결혼특성요인들이 결혼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결혼관계에서 긍정적 대처방식보다는 부정적 대처방식이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노부부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여 직접적인 부정적 태도의 표출을 지양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결혼특성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 및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노인들의 결혼개념은 제도적 결혼개념보다는 비교적 부부중심의 우애적 결혼개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대감을 나타내는 결혼응집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1로, 노부부의 결혼응집성은 중간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부부들의 결혼관계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결혼안정성은 평균 4.11로 지각하고 있어, 높은 결혼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부부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에게 적응하게 되고, 지속되어온 결혼생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Atchley, 1992 김태현 외, 1997)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조사대상 노부부들은 결혼관계의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며, 상대적으로 결혼안정성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대상 노부부의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소극적, 부정적 대처방식보다는 긍정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년기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안정성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60대가,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수준이 보통이상인 경우, 생활비를 일을 해서 마련하거나 연금·퇴직금 등 고정적 소득원이 있는 경우, 직업이 있을 때, 결혼기간이 39년 이하이거나 50년 이상일 때, 기혼자녀와 동거할 때가 결혼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소득원이 있는 등 노년기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활용이 높다고 여겨지는 노부부들에서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 $\beta=-.214, p<.05$ ), 결혼응집성( $\beta=.106, p<.05$ ), 결혼관계스트레스( $\beta=-.488, p<.01$ ), 부정적 대처방식( $\beta=-.370, p<.001$ )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부부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노년부부가 결혼생활에 대한 수용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도모하여 결혼응집성을 높게 지각할 때 결혼안정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부부가 결혼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결혼생활의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정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결혼응집성, 결혼관계스트레스, 부정적 대처방식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노부부의 개인적 변수들보다는 결혼관계를 나타내는 노부부의 결혼특성들이 결혼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노년기 부부들은 교육수준, 생활수준, 건강, 직업, 생활비 마련 방법 등에서 자원의 활용이 높은 경우에, 결혼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노년기 부부의 해체에 대한 증가로,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부부들의 결혼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적, 사회적, 경



제적인 측면 등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들이 결혼초기부터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부부들에게는 수단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보충적 지원서비스가 결혼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이신숙, 1997; 김태현 외, 1998; 임선영, 2001)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결혼관계의 질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혼안정성에서 노부부간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결혼안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 부부들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결혼 생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부부간의 상호 불일치를 완화하고 주관적 지각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부부역할은 전통적으로 아내에게 결혼생활에서의 인내와 헌신을 더 많이 요구하므로, 여성에게 낮은 만족도를 가져와 성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노년기는 부모역할이나 직업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이다. 즉 노부부들의 부부관계의 만족은 젊은 시절과 달리, 결혼관계의 재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부부가 주관적 인식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년기 부부의 새로운 역할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노부부가 결혼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보이는 모습들을 대중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는 결혼관계스트레스변인과 그에 대응하는 대처방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갖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노부부들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탐색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노년기 교육에서 노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법이나 구체적 스트레스 해소법 등이 제시되어 개인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대처방식이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부부들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긴장에 직면하여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노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부정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것이 결혼안정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부부가 보다 성공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에 공격적 또는 부정적 태도의 표출을 자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권희완, 1994; 박민자, 1994; 김수현, 1999)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부의 인식이나 태도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혼개념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노년기는 적극적 부모역할이나 직업역할에서 벗어나 성역할이나 결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나타나고 있으므로(Atchley, 1992; Anderson, 1993; 신화용 외, 1997), 노부부의 결혼개념과 태도변화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지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부부의 결혼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결혼만족이나 적응에는 관련되는 변수이지만, 결혼안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부부의 결혼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 이외의 다른 측정도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의 결혼개념과 결혼안정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도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부부에 있어서, 결혼기간이 40-49년인 경우에 다른 결혼기간에 비해 결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본 조사대상 노부부들의 제한적 특성인지 아니면, 결혼기간 40-49년 된 노부부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노화를 크게 직면하는 연령층이므로 특별히 더 전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과 결혼안정성은 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배경과 자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혼기간별, 또는 거주형태별 등 노부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비교적 결혼안정성이 높은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긴장상태가 높은 부부들의 특성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초기 부부의 결혼생활 특성을 밝혔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노년기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을 통한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집 수 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21일

#### 【참 고 문 헌】

- 권희완(1994).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35-70
- 김득성(1992).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계:사회교환론적 접근.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5.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김선영(1989). 도시저소득층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 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김영나(2000). 노인들의 부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자(1992). 도시 지역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 석사논문.
- 김윤희(1994).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응집력 및 적응력, 대처수준과의 관계. 충남대 석사논문.
- 김선우(2002).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행동과 결혼만족도.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수현(1999).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김재경(1997). 노년기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혜경(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태현·전길양(1998).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67-182.
- 노치영(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이대 박사논문.
- 박민자(1994).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71-109.
- 신화용(1995). 1980년 이후의 노년기 가족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4권 2호, 35-49.
- 신화용·조병은(1997).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5(4), 283-291.
- 손승영(1994).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55-291.
- 송영미(2000). 노년기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 양옥남(1995).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 유영주(1990).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가옥(2000). 노년기 삶의 질. 성공회대학교.
-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70-84.
- 임선영(2001).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조유리·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전길양·임선영(1998). 노년기 부부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2), 1-12.
- 전춘애·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윤영(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통계청(2001). 인구동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홍계영(1999). 노년기 부부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Anderson, T. B. (1993).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wife and retired-wife couples.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174-188. Beverly Hills. CA:Sage.
- Anderson, S. A, C. S. Russell & W. A. Schumm(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27-139.
- Anderson, T. & B. McCulloch(1993), Conjugal support :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8, No. 3. S133-142.
- Antonovsky, H. & Sage, S(1986).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coherence and its impact on responses to stress situatio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213.
- Atchley R. C., K. S. J. Millers(1983). Types of elderly couples. 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 H. Brubaker(Ed). Sage Publication. 77-90
- Atchley R. 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145-158. Beverly Hills. CA:Sage.
- Booth, A. D. Johnson & J. N. Edwards(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4.
- Canary, D. J., Cunningham, E. M., & Cody, M. J(1988). Goal types, gender, and locus of control in managing interpersonal conflict, *Communication Research*, 15(4). 426-446.
- Dobson, C.(1983), Sex-role and marital-role expectations ; In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 H. Brubaker(ed.), 109-126.
- Durcharme, Francine(1995). Longitudinal change in conjugal support and coping behaviors of elderly marital partners. *Journal of Family Nursing*, aug95. Vol.1. Issue 3. 281-290.
- Johnson. C. L. (1985).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65-172.
- Lee, G. R. & C. L. Shehan(1989).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44(6). S226-230.
- Lee, G.R.(1978). Marriage and moral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0. 131-139.
- Lewis, R. A & G. B. Spanier(1979).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4). 634-647.
- Miller B.C.(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156-168.
- Pearlin, L.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Riley, M. W.(1999).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t Relationships. in J. H. Scolnick(1999 ed.). *Family in Transition(10th)*.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cation Inc. 373-381.
- Skolnick, A.(1983). *The Intimate Environment: Exploring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 Little, Brown and Co.
- Tower, R & S. Kasl(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 *Journal of Gerontology*, Vol. 51B, No. 3, 115-129.